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인지디스플레이(037330)

### | 하드웨어/IT장비

요 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 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 성 자

신지혜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개자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기업데이터(주)(TEL.02-3215-239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 인지디스플레이(037330)

디스플레이 CHASSIS류 전문 제조업체, 사업 다각화 진행 중

기업정보(2020/11/9 기준)

대표자	정구용, 김용구, 정혜승
설립일자	1992년 3월 17일
상장일자	1999년 12월 14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액정 표시 장치 제조업
주요제품	TFT-LCD/LED 부품, 자동차 엔진/변속기 알루미늄 부품

시세정보(2020/11/23 기준)

현재가(원)	3,3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448
발행주식수(주)	43,885,224
52주 최고가(원)	4,095
52주 최저가(원)	995
외국인지분율	4.17%
주요주주	인자컨트롤스(주) 20.25%(대표자 정구용),
	(주)유텍솔루션 13.10%(대표자 정혜승), (주)사이맥스 10.48%, 정구용 3.06% 정혜승 1.91% 외

#### ■ 생산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 팩토리 구현

동사는 국내 및 해외 사업부에 다수의 생산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에 있어 4기의 자동화 라인 구축, 2010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2015년 바코드시스템, 2016년 주조조건솔루션, 2020년 스마트공장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생산성 향상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그룹 계열사 '인지에이엠티' 흡수합병을 통한 자동차 부품 사업 진출

동사는 조직개편 작업을 통해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 계열사인 ‘인지에이엠티’를 흡수합병 하였다. 동사는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을 생산하는 인지에이엠티의 사업을 이어받아, 고난이도의 설계 및 제조기술을 함께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흡수합병을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 사업재편 승인을 통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플레이트 사업 추가

2020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7개 기업 사업재편계획을 심의·승인하였다.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법에 근거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종 절차 간소화와 규제 유예, 세제 지원, 입지 특례, 정책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동사의 주력 사업이 속한 국내 LCD 시장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 및 중국 경쟁사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정체된 상황이었는데, 동사는 이러한 사업재편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플레이트를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4,788	22.81	29	0.60	13	0.28	1.42	0.50	66.88	57	3,927	31.17	0.45
2018	5,144	7.44	221	4.30	122	2.36	6.61	4.50	57.05	266	4,134	6.22	0.40
2019	5,578	8.44	238	4.27	86	1.53	2.70	2.40	134.31	111	3,822	18.88	0.55



## 기업경쟁력

###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국내 사업부 - 안산, 예산, 안성, 당진
- 해외 사업부 - 중국, 미국, 베트남

### 스마트 팩토리 구현

- 각 부품 제조를 위한 자동화 라인 구축
-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 - 생산성 향상, 원가 경쟁력 확보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핵심기술

#### ■ 디스플레이 부품

-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커버할 수 있는 부품 제조 기술 (26인치 ~ 110인치)
- OLED TV용 Curved type을 위한 Top & Bottom Chassis 제조 기술 보유

#### ■ 자동차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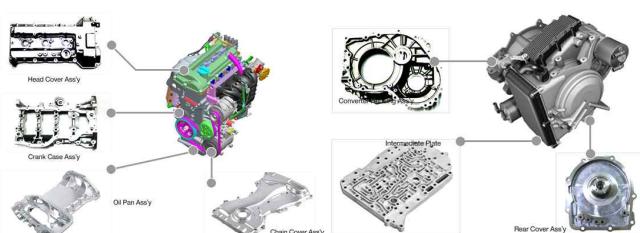
-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기술을 통한 자동차 경량 부품 제조(엔진 및 변속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 주요 제품

#### ■ 디스플레이 부품(CHASSIS 류)



#### ■ 자동차 부품(엔진 및 변속기)



### 매출실적

#### ■ 품목별 내수 및 수출 매출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7년 매출	2018년 매출	2019년 매출
디스플레이	수출 411,427	433,725	447,386
	내수 67,351	80,684	47,730
자동차	수출 -	-	-
	내수 -	-	62,726
총합계	478,778	514,409	557,842

## 시장경쟁력

### 디스플레이 부품 주요 고객사

SAMSUNG

삼성전자

SAMSUNG

삼성디스플레이

### 자동차 부품 주요 고객사

HYUNDAI

HYUNDAI

KIA

KIA MOTORS

HYUNDAI  
MOBIS



HOLDEN



### 사업 분야별 국내 시장규모

구분	2014년	2018년	성장률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	4,914억 원	6,088억 원	5.51%
자동차 엔진용 부품	167,505억 원	151,533억 원	-2.47%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부품	188,156억 원	196,600억 원	1.10%

## 최근 변동사항

### 그룹 계열사 흡수합병을 통한 신사업 진출

- 2019년 9월 조직개편을 통한 '인지에이엠티' 흡수합병
-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사업 진출
- 인프라 통합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조직 운영 효율성 및 사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중
-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통한 신소재 개발 추진 중

### 사업재편 승인을 통한 사업 추가

- 국내 LCD 시장, 저성장 기조 고착화 및 중국 경쟁사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 → 시장 성장성 정체증
- 2020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승인
- 동사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플레이트 개발을 통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진출 가능



## I. 기업현황

### TFT-LCD/LED 및 자동차 엔진/변속기 부품 제조 전문 기업

동사는 TFT-LCD/LED 부품 전문 제조사로, 2019년 진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자동차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 계열사 ‘인지에이엠티’를 흡수합병하여 자동차 부품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법인을 통해 글로벌 생산 기지와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주)인지디스플레이(이하 ‘동사’)는 1992년 3월 (주)세종으로 설립되어 1995년 3월 (주)중앙정밀과 합병한 후, 1999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8(원시동)에서 사업 영위중으로, 상시종업원 439명이 근무 중이다. 주력 사업은 TFT-LCD/LED의 주요 부품인 TOP, BOTTOM, SHIELD 등 CHASSIS류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과 자동차 엔진/변속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인 CRANK CASE, LF/YG HEV MOTOR&HOUSING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사업부에 안산, 예산, 안성, 당진의 4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대형 TV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 안성은 세라믹 부품 생산시설, 당진은 자동차 부품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해외 사업부에는 중국 오강시에 인지정밀제조(소주)유한공사, 중국 동관시에 동관인지전자유한공사, 미국 샌디에이고에 INZI DISPLAY, AMERICA INC, 베트남에 INZI VINA CO.,LTD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소형 및 대형 TV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운영 중에 있다.

[그림 1] 인지디스플레이 본사 전경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 ■ 대표이사 정보

대표이사 정구용(1945년생, 남)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 박사(명예), (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경력과 현대자동차(주), 정일공업(주) 등 자동차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12월 동사를 인수하여 동사 및 관계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인지컨트롤스(주), (주)넥스플러스, (주)넥스시스템즈, (주)싸이맥스, (주)인지에이원, (주)알루원, 신도이앤씨(주)의 대표이사 및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대표이사 김용구(1963년생, 남)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였고, 삼성전자 VD 사업부 상무, 삼성전자 인도 델리 연구소장, 삼성전자 폴란드 연구소장 등 전자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대표이사 정혜승(1972년생, 여)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Washington Univ. MBA과정을 수료하였다. 인지컨트롤스(주) 관리 담당 임원 역임하였고, (주)유텍솔루션, 알에프컨트롤스(주), 인지솔라(주)의 대표이사 및 부회장을 겸직하는 등, 동종업계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 정구용, 김용구, 정혜승은 개발기술의 시장 및 수요분석을 진행하고 주력 사업을 위한 실현가능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관련 목표 관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활발한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안정적인 지배주주 경영체제

동사의 최대주주인 인지컨트롤스(주)(대표이사 : 정구용, 김양수)는 1978년 1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6월 23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인지컨트롤스(주)는 동사의 관계회사로 정구용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며, 인지컨트롤스(주)와 대표이사 정구용, 정혜승의 보유 지분,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하면 약 49.98%로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사는 자본가와 경영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영자로서 전체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책임과 권한을 갖는 형태의 안정적인 지배주주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표 1] 인지디스플레이의 주요 주주 구성

주요 주주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식(주)	지분율(%)
인지컨트롤스(주)	관계회사	8,885,786	20.25
(주)유텍솔루션	관계회사	5,749,229	13.10
(주)싸이맥스	관계회사	4,601,155	10.48
정구용	본인	1,342,006	3.06
정혜승	본인	840,120	1.91
정장환	특수관계인	461,072	1.05
정혜은	특수관계인	51,960	0.12
김옥환	특수관계인	2,147	0.00
김석환	특수관계인	1,163	0.00
계		21,934,638	49.98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반기보고서(2020년 6월)

## II. 시장 동향

###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부품 시장, 완만한 성장세

국내 디스플레이 부품 시장은 정부의 핵심소재 국산화 계획으로 관련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 역시 각국의 환경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 정책으로 인해 친환경차 시장이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완만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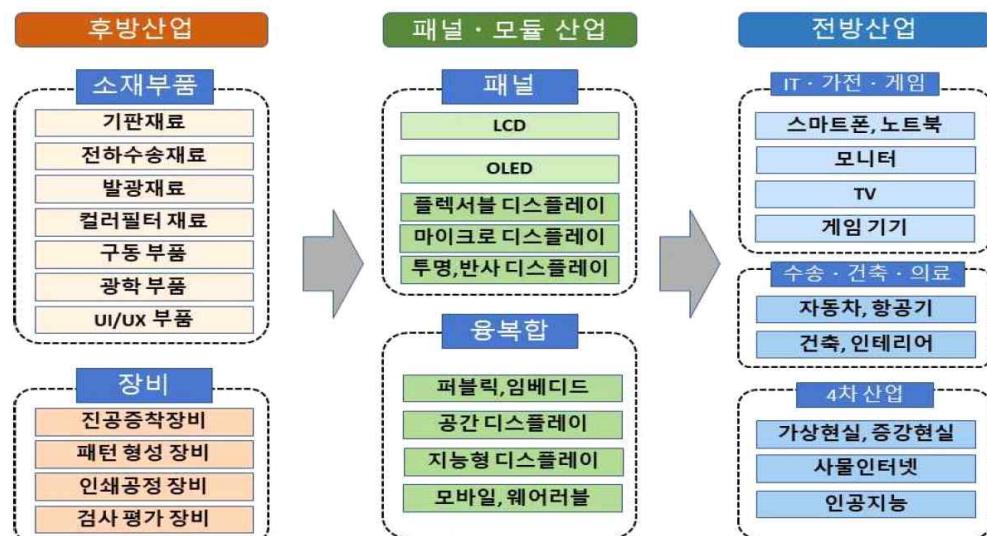
#### ■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 시장 2023년 7,960억 원 전망

디스플레이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인간과 기계를 화면으로 연결시켜주는 영상표시장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보여주는 기능이 중시되면서 IT 기기의 중심점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ICT기술 진화, 4차 산업 혁명 도래 등으로 인간-기계, 인간-기계-인간 간 연결성 증대를 위한 정보의 시각화 및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디스플레이는 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융합기기에서 중요한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에 있다.

산업 관점에서 보면 디스플레이산업은 패널 외에도 패널을 구성하는 부품 및 소재, 패널 제조에 투입되는 제조장비 등의 생산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디스플레이는 화면 구현 방식에 따라 직시형과 투사형으로 대별되고, 직시형이 LCD, PDP, OLED 등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를 형성한다. 현재는 LCD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LCD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후방 과급력이 큰 중간재 산업인 동시에 수직적 분업구조의 시스템 산업에 해당된다. 모니터 TV 등 전방산업에 속하는 완제품의 경쟁력에 디스플레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후방산업인 핵심 제조장비와 소재의 기술력이 패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패널 기업의 전체 설비투자에서 장비의 비중은 60% 이상이며, 장비 성능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장비도 중요한 경쟁력 요소이다.

[그림 2] 디스플레이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개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201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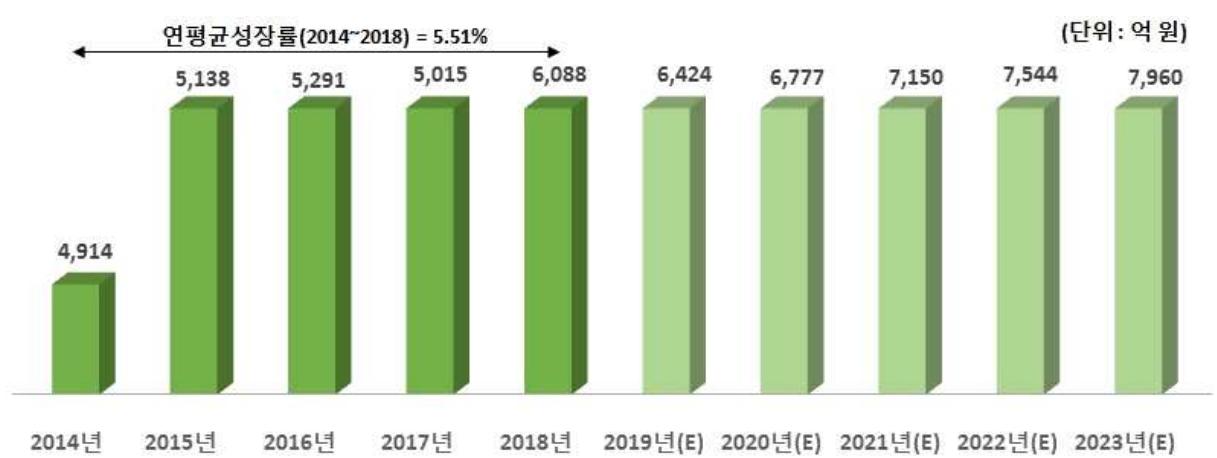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장비 및 부품·소재를 조달받는 전형적인 분업형 생산구조여서, 소수의 대기업과 수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다수의 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다. 패널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수한 부품 및 재료, 장비 생산기업의 확보가 중요하고, 중견·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패널 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사는 이러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TFT-LCD 및 LED의 주요 부품인 TOP, BOTTOM, SHIELD 등 CHASSIS류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TFT-LCD는 크게 Color Filter와 TFT가 형성된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 위치한 LCD패널과 빛을 제공하는 BLU(Back Light Unit), 구동회로가 더해지는 구조로, 이를 “LCD모듈”이라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제조사”들이 TV/모니터 등을 제조하는 “세트업체”에 LCD모듈을 납품하는 형태로 공급사슬이 구성된다.

동사 주력 제품들은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에 해당이 되며,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 산업은 LCD, PDP, OLED 등의 평판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요소부품을 생산하는 중간재 산업이다. 또한, 부품의 성능이 디스플레이 품질과 색재현성 등을 좌우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산업이며, 전방산업인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LCD, PDP, OLED 등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더불어 빠른 기술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 시장은 2014년 4,914억 원에서 2018년 6,088억 원으로 연평균 5.51% 증가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2023년에는 7,96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핵심소재 국산화 계획으로 관련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기술 투자 방향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어, 관련 국내 부품업체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그림 3] 국내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 시장규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하금액	4,914	5,138	5,291	5,015	6,088	6,424	6,777	7,150	7,544	7,960
성장률 (YoY)	-	4.6%	3%	-5.2%	21.4%	5.5%	5.5%	5.5%	5.5%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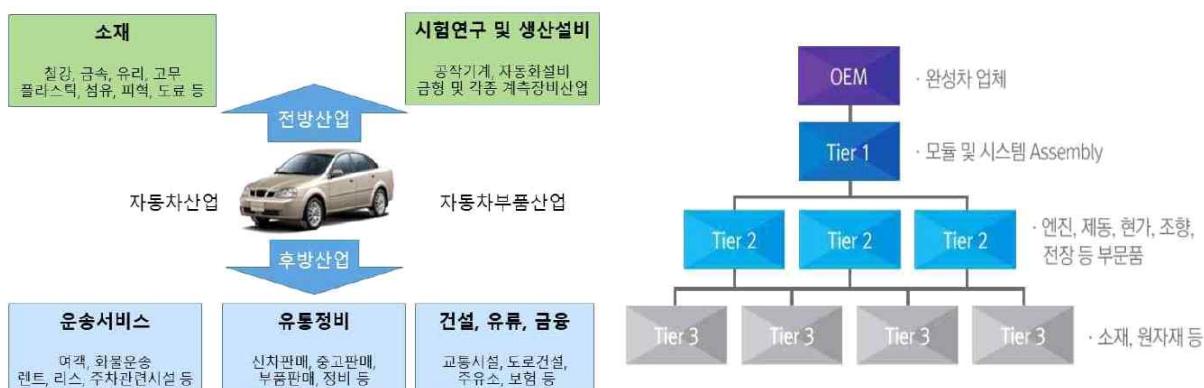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 소재 경량화를 통한 자동차 부품 시장 완만한 성장세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크다. 자동차 산업은 크게 제조, 유통, 운행으로 나눌 수 있다. 제조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다. 유통에는 완성차 업체의 직영 영업소나 대리점, 할부금융, 택송회사 등이, 운행에는 정비, 부품, 주유, 보험 등의 업종이 연관되어 있다.

[그림 4] 자동차 관련 산업 및 산업 구조



\*출처 : KOSME 융합금융처, KOSME 산업분석 Report 자동차, 2019.05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업계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을 발판으로 내수 및 수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졌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난 1976년 이후 2017년까지 총 9,761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 중 42.3%인 4,127만 대를 내수 시장에, 나머지 57.7%인 5,632만 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했다.

자동차 수요는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경제 성장을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국가마다 소수 업체 위주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일정 규모의 양산 설비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진입 결정 이후 제품 출시까지 최소한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산업 동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수요 위축으로 2020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2% 급락한 7,661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예측 판매량은 기저 효과로 인해 2020년 대비 12.2% 증가한 8,593만 대로 예상되며, 이후 판매증가율은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코로나19의 연내 종식을 전제한 전망치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따라 수요회복 시점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그림 5] 연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예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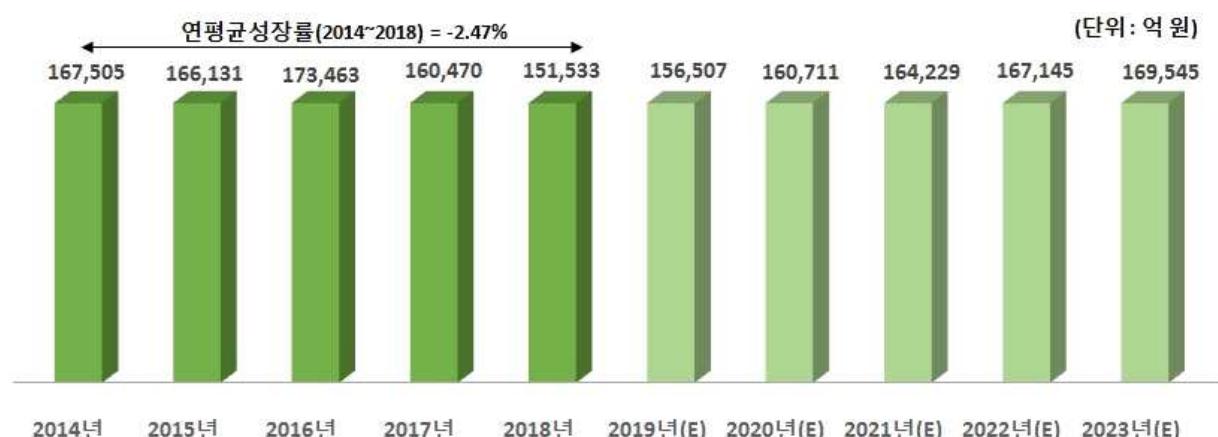


\*출처 : LMC, 삼정KPMG 경제연구원,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산업 동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 2020.04

그러나 자동차 산업은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연비 효율성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재의 경량화를 통한 연비 효율성 증대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에 소재 개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자원의 한정성, 각국의 환경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 정책으로 인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친환경차 시장이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엔진/변속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의 경우, 이러한 소재의 경량화에 발맞춘 부품에 해당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시장은 2014년 167,505억 원에서 2018년 151,533억 원으로 연평균 2.47% 감소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2023년에는 169,545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국내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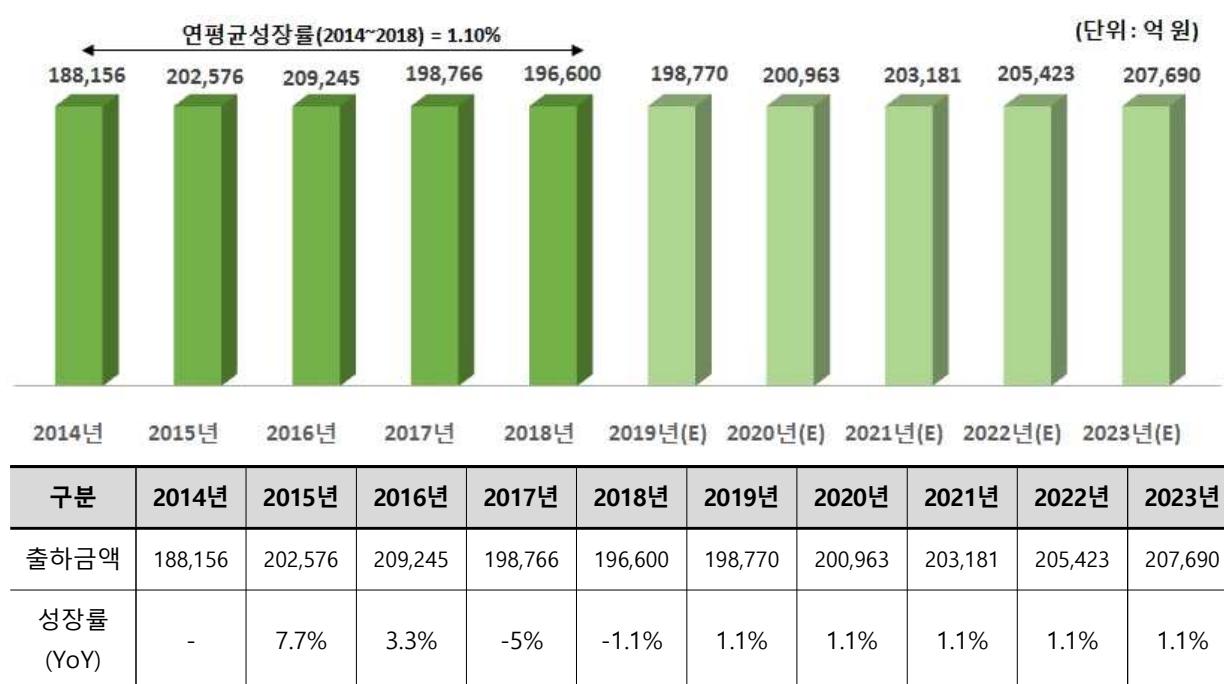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하금액	167,505	166,131	173,463	160,470	151,533	156,507	160,711	164,229	167,145	169,545
성장률 (YoY)	-	-0.8%	4.4%	-7.5%	-5.6%	3.3%	2.7%	2.2%	1.8%	1.4%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또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변속기 부품이 포함된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신품 부품 국내 시장은 2014년 188,156억 원에서 2018년 196,600억 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2023년에는 207,69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국내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신품 부품 시장규모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이러한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부품이 포함된 동력전달장치 시장의 성장세는 현대차 및 기아차의 신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품단가 비중이 증대되었고,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KD 세트 방식의 부품 수출의 증가세에 따른 공급 채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친환경차의 증대, 고객 다변화 및 글로벌 아웃 소싱 능력 확대 등이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III. 기술분석

#### 기술개발 전문팀을 통한 기술 진입 장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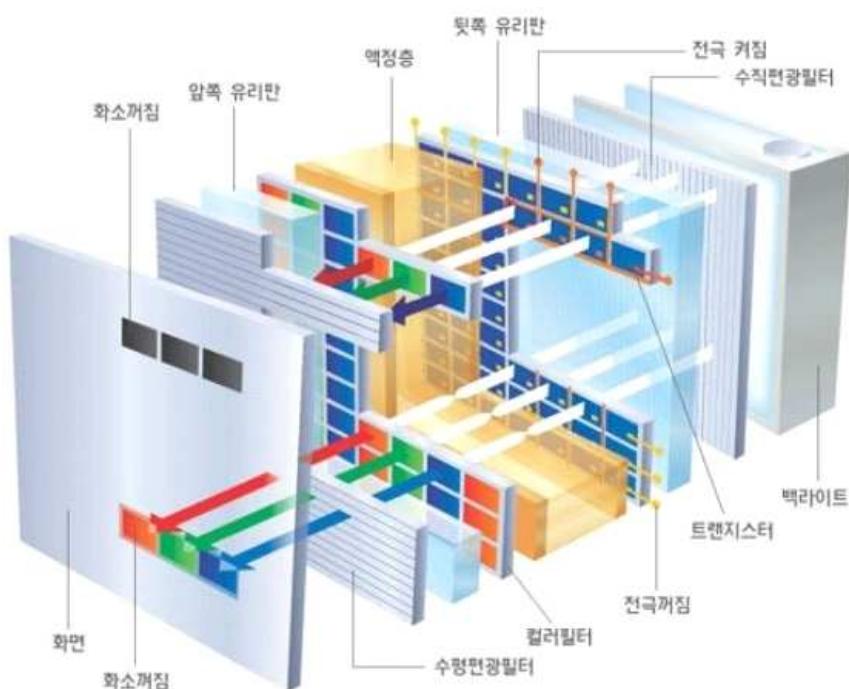
동사는 TFT-LCD/LED 부품, 자동차 엔진/변속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가치창조, 기술력 고도화를 통한 경쟁우위 선점, 전문화 및 특성화된 전문팀을 통한 연구역량을 극대화하여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커버할 수 있는 부품 제조 기술 보유

LCD(Liquid Crystal Display)는 LCD용 백라이트 유니트가 후방에서 백색광을 투사하면 액체 결정소재(액정)가 카메라셔터 역할을 하여 광량을 조절 후 컬러필터를 통과하면 다양한 색이 발현되는 것이다. 제조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LCD 기판이 TFT 어레이 공정과 컬러필터 공정에 투입되면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과 유사한 형태의 패턴형성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제조된 두 장의 유리판을 하나로 합쳐 액정을 주입하는 액정공정을 진행 후, 실제 사용되는 크기로 절단되어 LCD 기본 패널에 여러 가지 부품을 결합하는 모듈공정을 진행하여 편광판, BLU(Back Light Unit), PCB 등이 부착된 후 최종검사공정을 거쳐서 출하된다.

백라이트 유니트(Back Light Unit, BLU)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수광형 디스플레이인 액정디스플레이(LCD)에서 외부의 빛을 얻기 위해 TFT(Thin Film Transistor) 하판 밑에 장착하여 빛을 균일하게 조사하게 하는 광원 장치이며, BLU용 광학필름은 광원으로부터 선광으로 나오는 빛을 면광원화하고 휘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8] TFT-LCD 디스플레이 구성도



\*출처 : 디스플레이뱅크



TFT-LCD를 구성하는 부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첫째로는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한 패널 부품, 둘째는 액정을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IC 등의 회로부품, 마지막으로 광원인 BLU를 포함하는 모듈 부품이 있다.

[표 2] LCD 부품의 기능과 국내외 주요업체

부품명	기능	주요업체
글라스	TFT와 컬러필터 기판	삼성코닝정밀소재, 아사히글라스, NEG
컬러필터	적녹청의 컬러 구현	삼성전자, 동우화인켐, 도판, DNP
편광판	특정 편향 성분만 투과	LG화학, 에이스디지텍, 니토덴코
액정재료	배열에 따라 빛의 편광을 조절	머크, 치소
드라이버IC	TFT와 화소전극에 신호전달	삼성전자, 하이닉스, Sharp, NEC
BLU	수광소자인 LCD의 광원역할	한솔테크닉스
CCFL	실제 광원인 램프	HTL, West, 금호전기, 우리ETI
LED	실제 광원인 램프	삼성전기, LG이노텍
도광판	선광원(램프)을 면광원으로 변환	태산LCD, 엘앤팠프
프리즘	정면 휘도 향상	3M
Sheet류	빛 산란, 프리즘 보호	SKC, 코오롱, 새한
Chassis류	패널과 BLU 결합, IC보호	인지디스플레이, 파인디앤씨

\*출처 : 전자부품연구원, 유화증권 투자분석팀

상기의 표와 같이, 동사는 TFT-LCD의 주요 부품인 TOP, BOTTOM, SHIELD 등 CHASSIS 류의 제품을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Chassis Top은 Backlight unit의 구성품인 Panel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품형상에 따라 Blanking, Piercing, Lancing, Box B/D, Opening, Chamfer 등의 6 Robot 공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Chassis Bottom은 후면 전체를 보호하고 보강하고, 주로 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Notching, Embossing, Piercing, L-B/D, Box B/D, Burring 등의 6 Robot 공정으로 진행된다.

[그림 9] 인지디스플레이 Top & Bottom Chassis 6 Robot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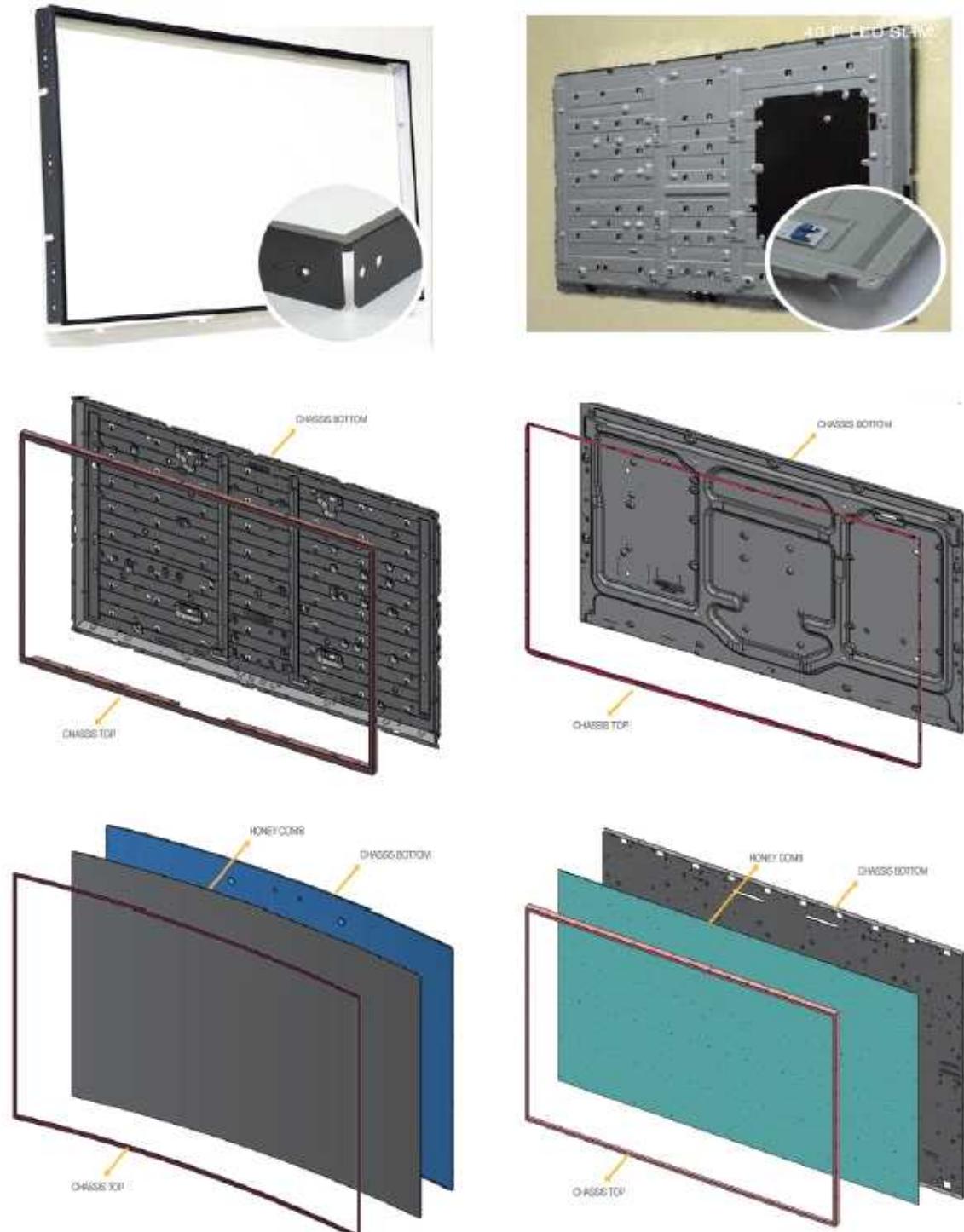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동사는 상기와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중소형 제품인 Mobile, Notebook, Monitor용 Chassis를 포함하여 대형 제품인 TV용 Chassi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TV용 제품은 26인치 제품부터 대형 사이즈인 110인치까지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 LCD TV용 Edge type LED, 직하형 LED를 위한 제품을 포함하며, OLED TV용 Curved type을 위한 Top & Bottom Chassis 제조에 있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0] 인지디스플레이 Top & Bottom Chassis 제품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 ■ 알루미늄 합금ダイ캐스팅 기술을 통한 자동차 경량 부품 제조

최근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기후변화협약, 배출가스 기준강화 등 환경규제가 심화되는 추세에 따라 친환경 차량 및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연료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중 자동차 경량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D Consultants의 「자동차 경량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다른 산업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자동차 배기량이 시장을 지배해온 경쟁 척도였다면 이제는 친환경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 환경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관련 업계는 소재 수준의 경량화 기술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부품 및 부재 수준에서 재료 대체나 이종재료와의 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의 연료소비효율 높이고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량 소재(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합금소재와 강철 소재 등 금속재료, 세라믹, 플라스틱 등을 조합한 복합재료)에 주목하고 있다.

차량 경량화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구조의 경량화, 공법의 경량화, 소재의 경량화 이 중 소재를 통한 경량화가 가장 높은 효율을 자랑하며, 고강도 강철부터 알루미늄, 마그네슘 순으로 가공 공법 발전에 따라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알루미늄 차량 부품을 도입 시 차체 중량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비 향상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절감의 효과도 동시에 가능하다.

[그림 11] 자동차 경량화의 효과



\*출처 :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주로 합금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 재료에 규소(Si), 아연(Zn), 구리(Cu), 마그네슘(Mg), 망간(Mn), 니켈(Ni) 등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합금으로, 주조(Casting)가 용이하며, 다른 금속과 잘 배합되고, 상온 및 고온 환경에서 가공이 용이함은 물론 비강도, 내부식성 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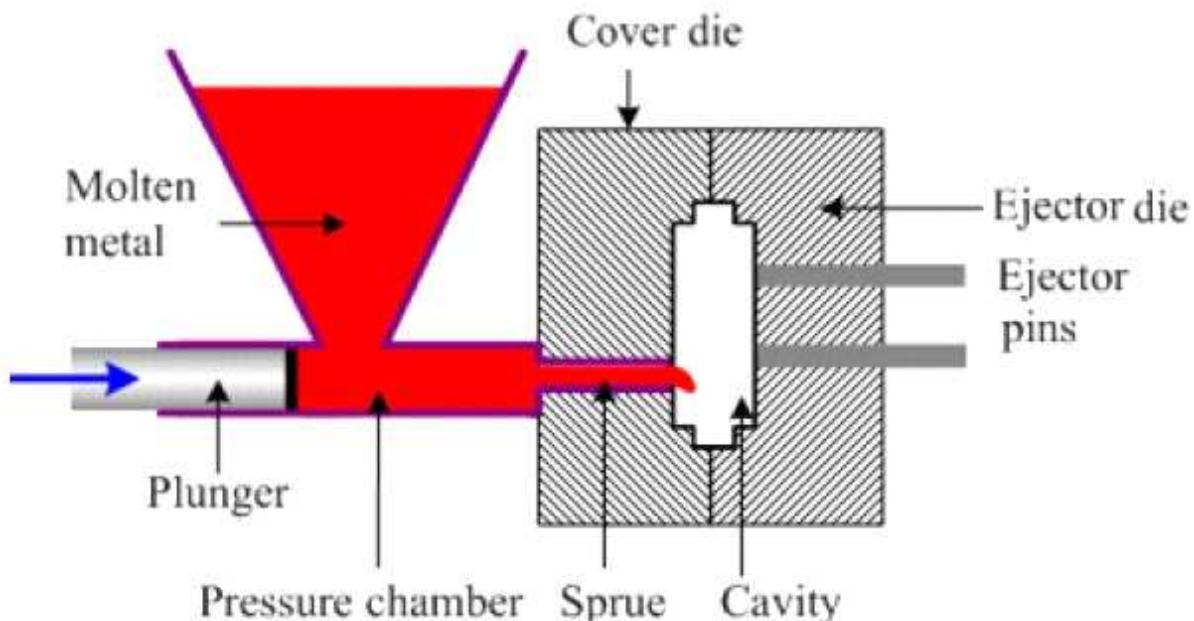


알루미늄 부품은 자동차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샤시 및 바디 부품 계열로의 적용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선진업체에서는 동력계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의 구리 전선을 알루미늄 전선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동사는 이러한 자동차 경량화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엔진 및 자동변속기 부품,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등 경량소재 부품 분야에서 알루미늄 합금을 다이캐스팅(Die casting)하여 제조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이캐스팅이란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용융점이 비교적 낮은 비철금속을 금형에 단시간 내에 고속, 고압으로 주입하여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깨끗하며 두께가 얇은 주물로 만들어져 경량화, 대량생산이 가능한 비철금속 주조법으로 경합금 소재의 고속 대량생산, 치수정밀도, 경량주물 소재 생산, 절삭가공 절감 등의 장점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전기전자부품의 생산에 매우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필요한 주조형상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계 가공된 강제의 금형에 용융금속을 주입하여 금형과 똑같은 주물을 얻는 정밀 주조법이다.

[그림 12] 다이캐스팅 원리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다이캐스팅 기술보고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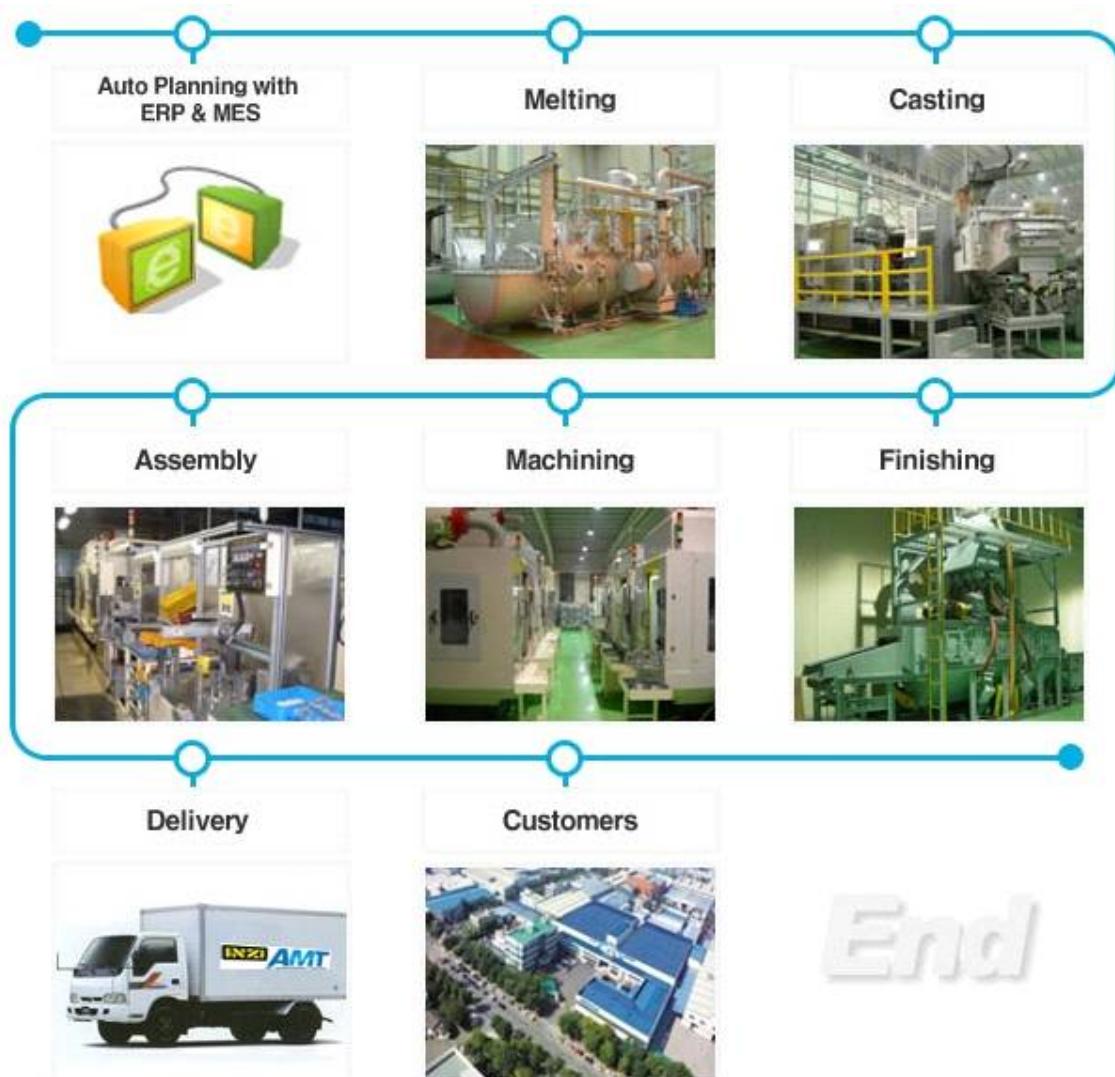
특히,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은 자동차 경량화에 크게 기여하여 연료절감 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조작안전성, 가속성 및 쾌속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 변속기 케이스류, 엔진 부품, 스티어링 휠, 내장 패널에 사용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차체 구조물에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에 있는 등 적용 분야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또한, 다이캐스팅은 금형제조 기술이 제품의 질을 좌우하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 금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개발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동사 제품의 주요 공정은 ① 알루미늄 용해(소재인 알루미늄 잉고트를 주조하기 위해 용융상태로 가열하여 용탕을 제조하며 주입에 적절한 온도로 유지 및 청정도 관리), ② 다이캐스팅 성형(알루미늄 용탕을 보온로에 유지하고 이를 자동주입 래들로 주조기 사출장치에 공급 후 사출장치로 금형에 고속/고압 사출하여 주조품 형성. 인서트는 사출전 로봇으로 장입), ③ 트리밍/사상



(주조품은 제품과 충진 부품으로 구성되어 제품에서 불필요한 부분 제거(트리밍) 및 사상을 로봇으로 자동처리), ④ 열처리(사상 후 주조품의 강도향상과 치수안정을 위하여 230도에서 안정화 열처리를 시행하여 가공소재 품질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임), ⑤ 가공(엔진에 조립되기 위하여 조립면의 면삭과 각종 볼트, 탭 가공과 특히 주철 인서트된 이종재 저널부는 특수전용가공 기로 연삭하고 황삭, 정삭, 건조공정을 거침), ⑥ 조립(크랭크 케이스는 각종 부싱, 오일필터아답터 등이 가공 후 조립됨. 조립 전에 1차 소재 leak 검사 후 각종 조립이 진행됨), ⑦ 검사 및 포장( 최종 조립된 제품은 전면 leak 검사를 전수 검사하며, 생산 shift 별로 전체 치수의 3차원 측정을 거치고 각 leak값은 전부 전산자동계측되어 양부관리 및 추적관리함)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

[그림 13]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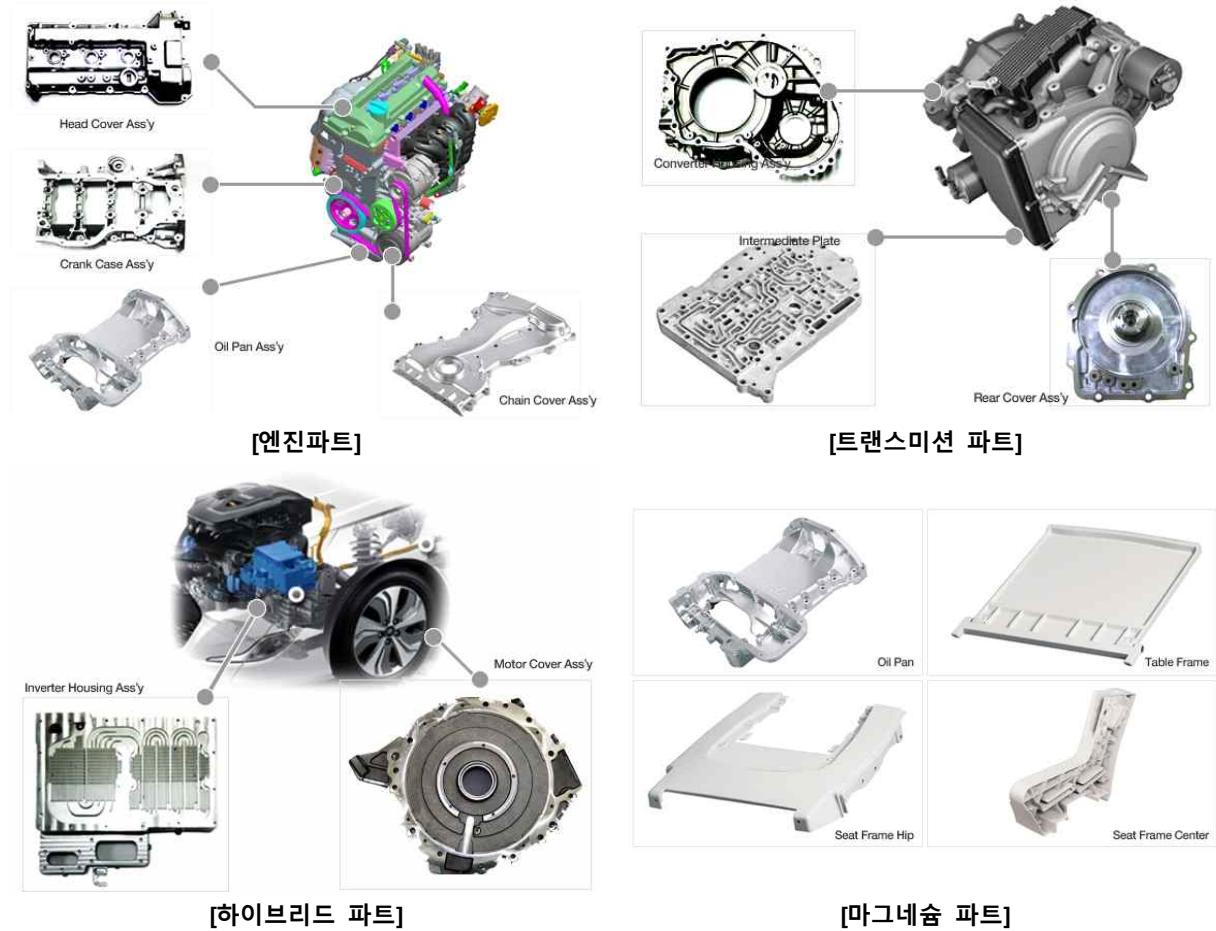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동사는 보유하고 있는 고난이도의 주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엔진블록에 조립되는 Crank case, 전동화부품, 엔진부품, 변속기부품을 개발, 양산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주조기술 특허권을 출원하는 등 경쟁업체 대비 높은 주조기술을 통한 주조, 가공, 조립, 출하에 이르는 일괄 생산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14] 인자디스플레이의 자동차 부품들



\*출처 : 인자디스플레이

## ■ 생산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 팩토리 구현

동사는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에 있어, 4기의 자동화 라인 구축(잉고트 용해로 장입에서 전자동 주조, 로봇 자동화 사상, 가공 조립의 전용 자동화라인 구축)을 통한 공정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수동라인 주조설비에 자체기술력을 통한 자동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실시간 주조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생산성 향상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5] 인자디스플레이의 자동화 설비



\*출처 : 인자디스플레이



## ■ 우수한 전문 인력 및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동사는 기술혁신을 통한 가치창조, 기술력 고도화를 통한 경쟁우위 선점, 전문화 및 특성화된 전문팀을 통한 연구경쟁력 확보, 국내외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구협력, 체제구축을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 등을 통하여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자동차 사업부 부설연구소 내 개발1팀(선행개발 기획팀), 개발2팀, 생산기술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개발1팀은 국내 자동차 및 해외자동차 등 다양한 고객사들의 의뢰를 받아 신규제품을 설계, 개발하고, 견적작성 및 신규, 설계, 시작품 단가를 책정하며, 개발품 일정을 관리하여 고객사의 맞춤형 개발 기획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2팀은 양산 적용 시 문제되는 주조해석을 통한 공정검토, 주조 능력검토, 외주 금형 개발, 설비 검토와 발주/시운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생산기술팀은 주조 후 가공 공정 검토, 양산 가공 공정검토, 가공 시 공구 개발과 가공 조립 능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시작연구를 함으로써 양산 후의 안정된 품질로 고객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표 3] 인지디스플레이의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명	연구분야	기대효과	개발년도
액정표시장치의 백라이트 유니트	디스플레이	품질능력향상	2010년
분할형 샤시탑 및 제조방법		생산능력향상	
바텀 샤시 제조 장치용 태핑기의 오일 미스트 공급 유니트		품질능력향상	2011년
이물질 제거 기능을 가진 태핑기구			2012년
샤시 제조용 프레스 금형 장치			
디스플레이장치용 샤시 제조장치			2013년
부품 자동 삽입기			
부품 자동 삽입기의 부품 공급장치			2014년
디스플레이장치 제조용 다이 인서트			
부품 자동 삽입기의 핀업 해드			2015년
표시장치용 샤시를 위한 부분 도색 장치			
곡면디스플레이 장치용 샤시 제조 장치			2017년
커브드패널 제조장치			
전자기기장치용 히트 플레이트 제조방법			
다이캐스팅 방법	자동차	품질능력향상	2010년
다이캐스팅용 사출슬리브			2011년
다이캐스팅용 사출슬리브			2013년
엔진의 로우 크랭크케이스용 알루미늄 베어링 인서트의 제조			2016년
다이캐스팅용 스프레이 해드			2017년
파이프 삽입 고압주조용 디프케이스		품질능력향상	2018년
하이브리드 다이캐스팅에 의한 엔진 로우 크랭크케이스 제조			
파이프 삽입 고압주조용 디프케이스			
주조/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자동차용 기밀성케이스			
파이프 삽입 고압주조용 디프케이스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반기보고서(2020년 6월)



## IV. 재무분석

### 삼성전자의 글로벌 협력사로 제품 생산 경쟁력을 통한 매출 성장 기대

동사는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성장세 유지 및 자동차 사업부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사업재편을 통한 차세대 QD(Quantum-dot) 디스플레이용 부품 공급사로서 새로운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로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 ■ 견조한 매출 증가세 유지

동사의 주요 사업 및 매출 구조는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TFT-LCD 패널 모듈에 사용되는 TOP CHASSIS류의 제품과 BLU(백라이트유닛)에 사용되는 BTM CHASSIS류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사업보고서 상 국내 매출이 8.6%(477억 원), 해외 매출이 80.2%(4,473억 원)이고 자동차 사업부 매출 11.2%(627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품목별 매출 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부분	매출 유형	품목	2020년 반기	2019년 반기	2019년	2018년	2017년
디스플레이 사업부	국내 사업부	제품	TOP/BTM CHASSIS	20,836	19,973	37,705	65,484
		상품	월리벳,SUS, AL 등	6,768	9,110	8,941	14,034
		임대	임대매출	480	460	957	823
		기타	공정 부산물 등	28	77	127	344
	해외 사업부	제품	TOP/BTM CHASSIS	198,596	184,544	437,026	423,113
		상품	월리벳,SUS, AL 등	4,453	2,040	3,876	4,940
		임대	임대매출		112	-	-
		기타	공정 부산물 등	1,919	3,180	6,484	5,672
자동차 사업부	국내 사업부	제품	CRANK CASE / 전동화부품 등	94,203	-	62,726	-
		임대	-	2	-	-	-
합계		제품	TOP/BTM CHASSIS, CRANK CASE 외	313,635	204,517	537,457	488,597
		상품	월리벳,SUS, AL 등	11,221	11,150	12,817	18,974
		임대	임재매출	482	573	957	823
		기타	공정 부산물 등	1,947	3,257	6,611	6,016
		소계		327,285	219,497	557,842	514,410
							478,778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0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동사의 주요 고객사(삼성전자)의 해외법인(중국, 미주, 베트남)으로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합병[인지에이엠티(주) 2019년 9월 흡수합병, 2018년 매출 1,588억 원]에 따른 자동차 부품 부문의 매출 기여로 전년 동기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동사의 최근 매출은 2017년 4,787억 원(22.8% YoY), 2018년 5,144억 원(7.4% YoY), 2019년 5,578억 원(8.4% YoY)을 달성하였고 2020년 반기 매출은 3,2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한 실적을 시현 하였다.



## ■ 합병 이후 영업이익의 확대 및 수익성 개선

동사는 2019년 9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인지에이엠티(2018년 매출 1,589억 원, 영업손실 4억 원, 당기순손실 27억 원)를 흡수합병 하였다.

2019년 매출은 5,578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약 8.4% 증가 하였고 이는 자동차 부품 부문의 합병에 기인하였으며, 순이익률은 관계기업투자손실 증대, 법인세 증가로 순이익률은 2018년 동기 대비 0.9% 포인트 감소한 1.5%를 시현하였다.

2020년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7%, 40.3% 증가한 145억 원, 94억 원을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1% 증가한 3,273억 원을 시현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4.4%로 전년 동기(4.1%) 대비 0.3%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사업부의 실적 개선되면서 전체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법인의 경우 사업 부진을 겪었던 법인의 청산, 나머지 해외법인의 4월 이후 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 손실의 축소에 기인하였다.

동사의 업황 전망은 전방 디스플레이 업황의 회복 기대와 주요 고객사의 투자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이 전망되나,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다.

[그림 16]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0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5] 주요 재무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20년 반기 말	2019년 반기 말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3,273	2,195	5,578	5,144	4,788
영업이익	145	89	238	221	28
당기순이익	94	67	85	121	13
매출액증가율(%)	49.1	-1.1	8.4	7.4	22.8
영업이익률(%)	4.4	4.1	4.3	4.3	0.6
순이익률(%)	2.8	3.0	1.5	2.4	0.3
부채비율(%)	126.2	67.51	134.3	57.0	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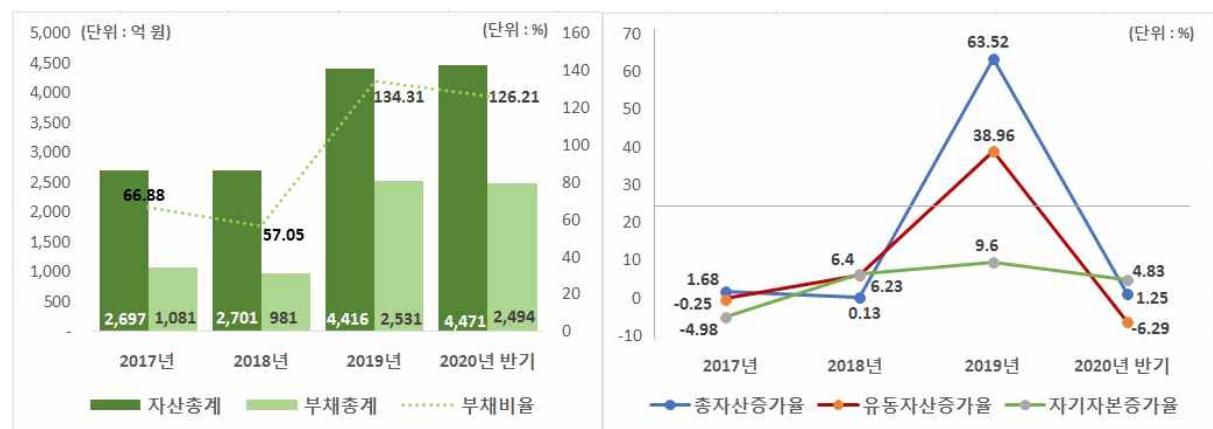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0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 흡수합병에 따른 차입금 증가 및 재무안정성 소폭 하락

동사의 2019년 재무 상태의 변동은 전반적으로 흡수합병에 따른 것으로 동사의 2019년 말 차입금은 2018년 466억 원 대비 215.8% 증가한 1,472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2018년 말 57.0%에서 2019년 말 134.3%로 77.3% 포인트 증가하였다. 2020년 반기 부채비율은 126.2%로 2019년 말 대비 8.1%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2020년 반기 말 자산총계는 2019년 말 대비 1.2% 증가한 4,471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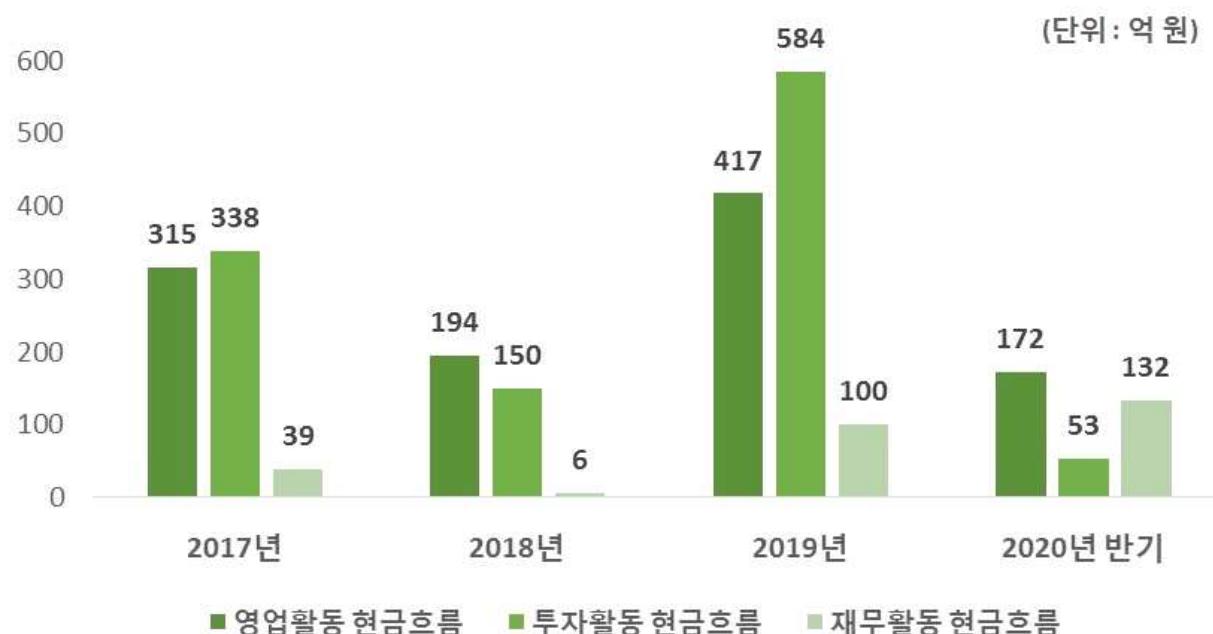
[그림 17]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0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동사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사업 특성상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편으로 지속적 설비자산의 투자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18] 현금흐름 분석



\*출처 : 인지디스플레이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0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조직개편 및 사업재편 승인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동사는 그룹 계열사인 ‘인지에이엠티’를 흡수합병 하여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정부의 사업재편 승인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플레이트 사업을 추가하여 향후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 그룹 계열사 ‘인지에이엠티’ 흡수합병을 통한 자동차 부품 사업 진출

동사는 조직개편 작업을 통해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 계열사인 ‘인지에이엠티’를 흡수합병 하였다. 최근 디스플레이(LCD/LED) 부품의 국내 매출 감소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동사는 흡수합병을 통해 자동차 엔진과 변속 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을 생산하는 인지에이엠티의 사업을 이어받아, 고난이도의 설계 및 제조기술을 함께 갖추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원청사인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통한 신소재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자동차부품 사업에서 627억 원 매출액이 처음 발생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 942억 원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이러한 흡수합병을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프라의 통합 활용으로 비용절감 등 조직 운영 효율성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 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산업의 관련된 국내외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원화된 사업구조 통합을 통한 법인운영 비용 개선, 경영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 사업재편 승인을 통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플레이트 사업 추가

2020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7개 기업 사업재편계획을 심의·승인하였다.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활력법에 근거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종 절차 간소화와 규제 유예, 세제 지원, 입지 특례, 정책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실 발생 후의 사후적 구조조정은 공격자금 투입·실업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부실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사업재편지원 제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디스플레이 기업군 6개사(삼성디스플레이, 인지디스플레이, 파인디앤씨, 파인테크닉스, 엘티씨, 회명산업), 자동차부품 기업군 6개사(우수AMS, 동서기공, 인팩, 서진오토모티브, 서진산업, 인팩이피엠), 기타 신산업 3개사(삼양이노캠, 엔알텍, 카라바스) 등이다. 특히 정부는 테마형 사업재편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LCD(액정표시장치)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려는 기업 6개사가 대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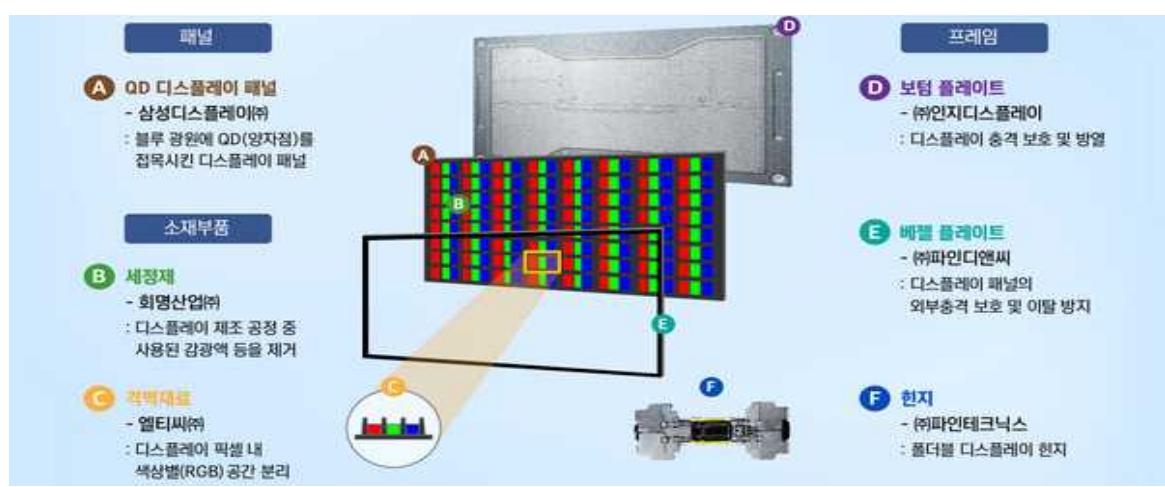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차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례와 같이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 적



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사업재편 전 과정을 부처차원에서 맞춤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전환 제도와 연계해 더 적합한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동사 주력 사업이 속한 국내 LCD 시장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 및 중국 경쟁사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정체된 상황이었는데, 동사는 이러한 사업재편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플레이트를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9] 차세대 디스플레이 진출 산업생태계 사업재편 승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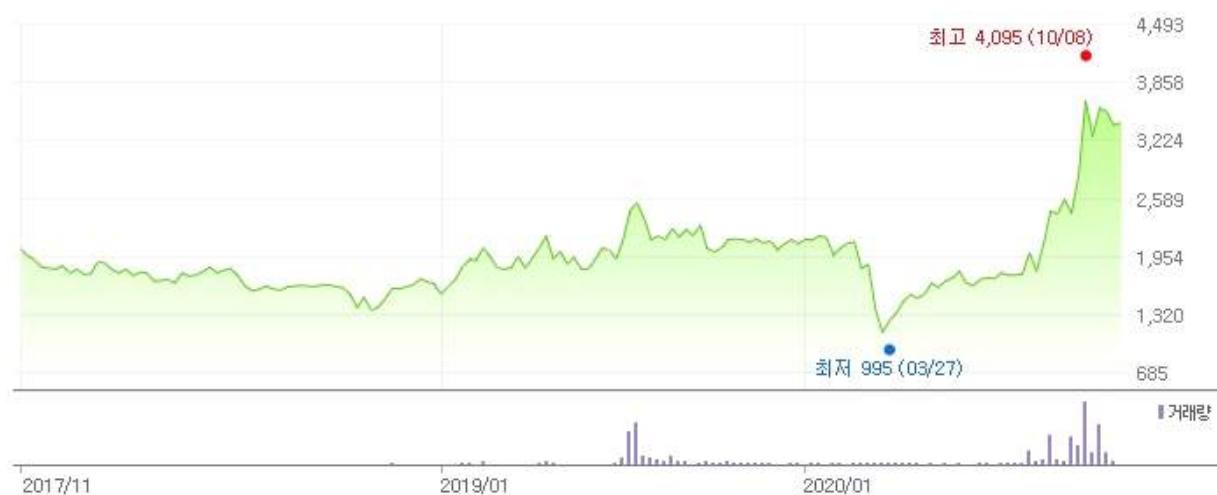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해당사항 없음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20] 인자디스플레이 3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 네이버증권(2020.11.09.)